

수리 팥 독도 이야기 제 2호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발행처 신서고 하누리

독도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

독도에 사는 동물은 주로 조류(새)와 곤충류이다.

독도에 살고 있는 동물은 주로 조류(새)와 곤충류이다.
2009년 6월까지 독도에서 관찰되어 기록된 조류는 모두 139종에 달한다.

- 독도를 번식지로 이용하는 조류



- 독도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독도의 곤충은 2006년까지 93종이 보고되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독도는 많은 곤충들의 생물 지리적 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도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있을까?

봄에는 갯장대, 여름에는 땅채송화와 갯제비쭉,
가을에는 해국이 온 섬을 꽃으로 수놓는다.

독도는 토양의 깊이가 얇아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힘든 생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생명의 강인함을 볼 수 있는 섬으로 척박한 생태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줄기차게 자라고 활동하는 섬이다.



독도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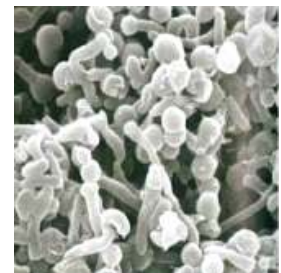
독도는 해양 미생물의 보고이다. 독도 미생물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한하다.

2005년 미생물 과학자들이 독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세계 최초의 신종 세균들을 발견한 뒤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생물 과학자들은 새로 발견된 4개의 세균에 ‘독도니아 동해엔시스’, ‘독도넬라 코린시스’, ‘동해아나 독도넨시스’, ‘휴미코커스 플라비더스’라는 신속학명을 붙였고, 국제 미생물 학회에 보고하여 공인을 받았다.

독도의 미생물 연구는 새로 개척된 유망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독도에서 발견된 신규 미생물은 항생제, 효소, 무공해 농약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분석 작업을 하는 중이다.



<독도니아 동해엔시스 세균>



<동해아나 독도넨시스 세균>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는 어떠할까?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북위 30~40도 부근에서 만나는 지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한 해역이다. 섬이 많은 황해와 다르게 섬이 드문 동해에는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독도 주변의 어장에서 가장 풍부한 어류로는 오징어, 문어, 방어, 개복치, 도다리, 붕장어, 돌돔, 도루묵, 산갈치, 임연수어, 볼락, 우럭볼락, 조피볼락, 가자미류 등의 난류성 어류와 청어, 명태, 대구, 말뚝치 등의 한류성 어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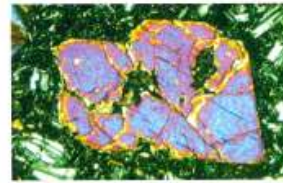
수리 팟 독도 이야기 제 2호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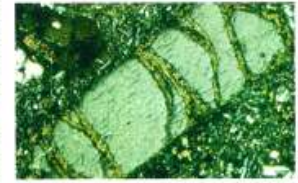
발행처 신서고 하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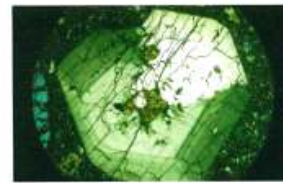
독도에서 볼 수 있는 주요 광물은 감람석, 단사휘석, 사장석, 알카리장석, 흑운모, 자철석 등이 있다. 이 광물들은 대부분 용암류인 조면암과 화산재가 굳어서 형성된 응회암과 각력암에서 형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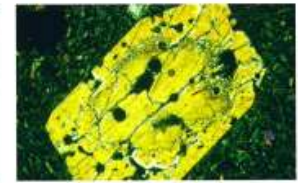
자형의 결정으로 관찰되는 감람석 반정



개질과 변질이 발달하여 몇 개 조각으로 나뉜 감람석 반정



누대 구조가 관찰되는 휘석 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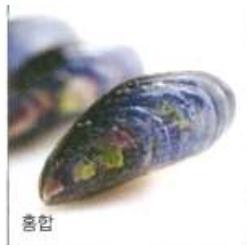


자형의 단사휘석 반정

독도 주변 바다에서 풍부한 무척추동물로는 전복, 소라, 홍합, 밤고둥 등이 있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중요한 수산 자원의 보고이자 어류의 서식처로서 황금 어장을 이루고 있다.



소라



홍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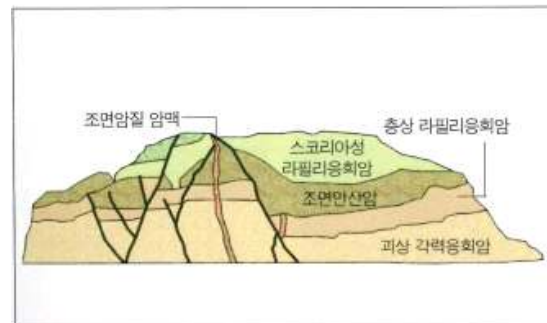


바다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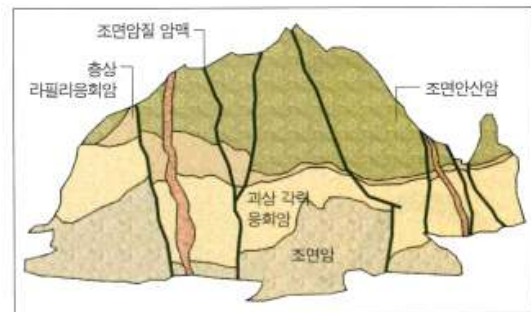


바다장미

독도 화산암의 '광물 구성'은 어떻게 될까?



동도 사면에 분포하는 암석



서도 사면에 분포하는 암석

독도에 분포하는 암석을 보면 독도가 여러 차례의 화산 활동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